

##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라

- 부처가 말한 色卽是空이란 우리를 향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외치는 경고다. 존재는 눈에 보이는 사물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도 있다. 아인슈타인도 "눈에 보이는 것은 환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실한 세계다"라고 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얹매이지 않을 수 있다.